

『上黨倡義錄』 해제

고수연 *

본 책의 標題는 上黨倡義錄으로 朴之垺와 朴昌漢이 편찬하여 1773년(영조 49)에 발간하였다.

庚申換局(1680)·甲戌換局(1694) 이후 정치적으로 몰락한 南人 계통의 양반들과 乙巳換局(1725) 이후 정권에서 소외되었던 少論 過激派 양반들은 영조와 노론 정권의 교체를 위하여 1728년(영조 4) 3월 청주지역을 시작으로 무신란을 일으키게 된다.

반군은 1728년 3월 15일 청주읍성에 이어 상당산성까지 점령하였다. 그러자 청주지역 사족들은 소극적으로나마 여러모로 반군을 진압하려 하였고, 안성·죽산까지 진출한 반군이 관군에게 진압되는 3월 24일을 기점으로 청주에서 일제히 본격적인 의병활동을 시작한다. 상당창의록에는 바로 이때 반군을 진압하고 청주읍성과 상당산성을 탈환한 대표적 의병의 활동 내용을 수집하여 엮은 책이다.

상당창의록은 1冊의 14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책의 크기는 29.5×18.6cm이다. 목판본으로 四周單邊에 半郭·有界로 10行20字이며, 版心은 上下向黑魚尾이다. 소장기관은 단국대학교 울곡기념도서관(천안)이다.

책의 목차는 上黨倡義錄序, 淸州府討逆梟首圖, 上黨山城討逆圖, 倡義錄, 遺補 순이다.

(1) 上黨倡義錄序는 1773년 2월 28일에 黃景源이 작성한 서문으로 무신란 당시 의병의 義烈을 표창하여 후세에 빛내주기를 바란다면서 서문을 작성한 이유와 과정을 밝히고 있다. 李緯의 문인이었던 편찬자 박창한이 같은 이재의 문인으로 文識이 있는 황경원에게 서문을 청한 것으로 보인다.

(2) 淸州府討逆梟首圖는 의병 朴敏雄이 청주병영으로 들어가 반군 李樸 등을 참수하여 깃대에 매달고 상당산성으로 향하기 직전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3) 上黨山城討逆圖에는 의병 黃龍澤 등이 성으로 들어가서 반군 18명의 목을 베고 상당산성을 점령한 모습이 그려져 있다.

(4) 倡義錄에는 먼저 朴敏雄의 의병활동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다음으로 朴敏俊·朴之垺·延壽昌·李世命·朴重最·李鵬海·閔鎮綏·吳德明·金夢魯·兪彦協·金光魯·卞觀夏·李慶雨 등 총 14명의 의병이 기록되어 있다. 인명 뒤에는 의병활동의 내용을 기록하

었는데, 변관하와 이경우는 무슨 까닭인지 ‘本初가 오지 않아 언급하지 않는다’라고 하여 이름만 기록되어 있다.

창의록에 기록된 의병들의 행적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먼저 朴敏雄(1674-1732)은 순천박씨로 호는 西湖山人이다. 부사 朴元震의 손자로 무신란이 일어나자 서울에서 고향 청주로 돌아와 군사 수백인을 모집하여 반군의 진압에 나섰다. 박민웅은 이후 대신들의 추천으로 忠淸兵馬虞候 兼 倡義使로 임명되었다.

朴敏俊은 朴敏雄의 아우로 자는 彦伯이다. 형이 의병을 일으키자 선봉이 되어 의병활동을 하였다.

본 책의 편찬자이기도 한 朴之垺는 순천박씨로 자는 馨伯이다. 박지후는 임진의병장 朴春茂의 5대손이자, 병자호란 때 순절한 朴東命의 현손으로 1727년에 부친상을 당하여 시묘살이 하던 중 무신란이 일어나자 아들 朴龍漢·朴光漢을 선봉, 從弟 朴之彩·朴之蘭을 後隊, 柳時默·南天重을 종사관으로 삼아 의병 100여 명을 모아 族叔 朴敏雄과 함께 연합하여 청주읍성과 상당산성의 반군을 진압하였다.

延壽昌(1687-?)은 곡산연씨로 延最績의 아들이다. 자는 文學이며, 門蔭으로 예산현감을 지냈다. 난이 일어나자 趙持誠·趙完澹의 부자를 시켜 의병 40여 인을 모으게 하여 청주읍성의 반군을 진압하고, 그 뒤 朴敏雄과 합세하여 상당산성으로 향하여 반군을 진압하였다.

李世命(1674-?)은 전주이씨로 자는 聖叟이다. 난이 일어나자 從姪 李泰之를 副官으로 삼고, 堂姪 李元之·李亨之 형제를 從事官으로 삼고, 三從 李希命·李宗人·李敏核을 선봉으로 하고, 再從 李啓命·李徵命을 後部로 하고, 閔遇聖·閔誦運으로 糧職을 삼고, 친지 70여명을 모아 의병을 일으켰다. 청주읍성에 이르러 朴敏雄 군과 합세하여 반군을 진압하고, 다시 상당산성에 들어가 진압하였다.

朴重最는 상주박씨로 己卯名賢 朴光佑의 6대손이며, 자는 器伯이다. 난이 일어나자 아우인 진사 朴敏叡와 함께 의병을 거느리고, 박민웅과 합세하여 반군을 진압하였다.

李鵬海는 한산이씨로 고려말의 명현 李穡의 13대손이다. 從弟 李思海, 堂姪 李重著, 鄉人 金陽龜 등을 이끌고 수백 인을 모아 창의하여, 청주읍성의 동문을 치고 朴敏雄의 군과 합세하여 반군을 진압하였다. 이봉해는 무신란으로 목숨을 잃은 병사 李鳳祥, 비장 洪霖, 영장 南延年 세 장수를 제향한 三忠祠(표충사)의 건립을 건의하기도 하였다.

閔鎭綏(?-1728)는 여흥민씨로 예종대에 이조정랑을 지낸 閔粹의 8대손이다. 자는 士安으로 權尙夏 문하에서 학문을 익혔다. 난이 일어나자 인근 친지 100여 명을 규합하고 士人 李鵬海 등과 합세하여 상당산성에 들어가 반군을 진압하였다.

吳德明(1675-1732)은 보성오씨로, 자는 德甫, 호는 上黨逸民이다. 한성부서윤 吳燾의 손자이며, 호조참의에 증직된 吳應昌의 아들이다. 무신란이 일어나자 상당산 아래 자신의 집으로 도피한 청주목사 朴鏜으로부터 반란을 듣고 창의하였다. 그는 우선 山東 東伍軍이 반군에 투항하지 못하도록 막고 반군이 나누어주는 곡물을 향민이 받지 않도록 설득하였다. 그리고 3월 24일 두 아들 吳昉·吳曼과 함께 의병 62명을 이끌고 산성을 쳐서 반군 수십 인을 배고 運壽軒에서 30여 인을 사로잡았다.

金夢魯(1694-1738)는 청풍김씨로, 자는 聖希, 號는 歸農堂이다. 郡守 金樞의 아들이다. 1716년(숙종 42)에 무과에 급제하여 내외 직을 두루 거친 후 충청도 수군절도사를 역임하였다. 1726년에 관직을 사임하고 향리인 청주로 돌아왔다. 난이 일어나자 前注書 柳彥協 및 三從兄 金光魯 등과 함께 의병을 일으켜 수백 명을 모병하였다. 유언협과 김광노를 종사관으로 삼고 아우 金應魯·金範魯, 재종질 金致龜, 무인 柳彥翁·朴重天 등을 비장으로 삼아 도순무사 吳命恒에게 격문을 띄워 창의 사실을 알렸다. 청주읍성을 야습하여 반군들을 잡아 목을 베고, 상당산성으로 향하던 중 이미 진압되었다는 말을 듣고, 회군하여 읍성에 남아있던 반군을 진압하였다.

前注書 俞彥協과 김몽로의 三從兄 金光魯는 무신란 당시 김몽로의 종사관이 되어 의병활동을 하였다.

卞觀夏(1666-1737)는 초계변씨로 字는 禮甫이다. 부친 卞東尙은 송시열의 문인이며, 변관하 역시 송시열과 권상하에게 학문을 배웠다. 1714년(숙종 40) 생원시에 합격한 후 무반으로 翊贊을 지냈다. 무신란이 일어나자 먼저 의병을 일으켜 檄文을 지어 遠近에 고하였으나, 原從功臣의 기록에만 들었을 뿐 본 책인 「上黨倡義錄」과 「淸州戊申奮武錄」에 그에 대한 사적이 누락되어 있다. 이후 1788년(정조 12) 무신년에 殉國하였으면서도 아직까지 공적이 褒揚되지 않은 사람들을 조사할 때, 조정에서 쌀과 고기를 내렸다.

李慶雨는 고성이씨로, 자는 茂叔, 호는 寒竹堂이다. 무신란에 의병을 일으켜 李鵬海, 閔鎭緩, 卞觀下 등 의병장과 청주 인근에서 군사를 수습하여 인솔하고 淸州邑城 남문밖에 이르니 이미 朴敏雄이 신천영과 이기좌를 처참한 뒤였다. 그리하여 성문 안에서 합세하여 남은 반군을 진압하였다.

이들 14명 중 유언협과 김광로를 제외한 12인은 奮武原從功臣 1등을 받은 공신이다. 유언협과 김광로는 그 의병활동의 공로로 인하여 상당창의록에서 추가로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14명의 의병들은 대부분 박민웅과 합세하여 의병활동을 전개하였으며, 노론적 성향을 지닌 청주지역 가문으로 파악된다. 연수창의 아버지는 1693년 仁顯王后 폐위의 부당성을 상소하다 옥사한 감찰 延最績이며, 변관하의 아버지 역시 노론의 영수 송시열의 문인인 卞東尙이다. 변관하도 송시열에게 학문을 배우고 권상하의 문인이 되었다. 또 민진수도 권상하의 제자였으며, 박민웅 역시 노론과 가깝게 지낸 것으로 보인다. 박민웅은 1716년 11월 화양서원 사액과 치제에 참여했으며, 1722년에는 도암 이재의 문하에서 유학하기도 하였다. 박민웅의 조카인 박지후 역시 이재의 문인이었다.

(5) 遺補에는 공신에는 들지 못했으나 무신란 당시 청주에서 의병으로 공이 있는 士人 金世觀, 同知 金晉熙, 士人 金世萬, 士人 柳社錫, 土校 金志恒·成志行·金萬弼·金鐵과 남연년의 家奴 晚萬·憲禮, 土校 李時輝, 妓生 海月の 활동이 기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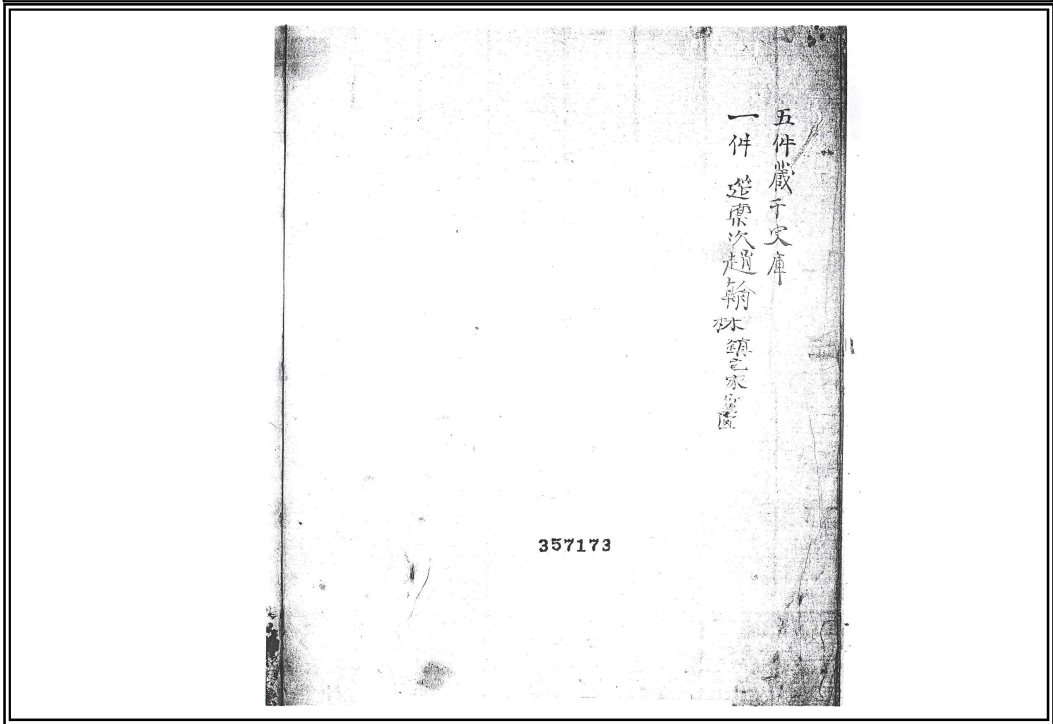
이중 金晉熙는 공조참판 김우항의 서자이자 숙종 때 우의정에 오른 서인 노론 金宇杭의 조카이다. 당시 김진희는 상당산성 아래에 살았는데, 난이 일어나자 州校 李鎭遇·趙重廉과 의병을 70여 명을 모아 은밀히 상당산성을 지키는 포수들을 타이르고는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신천영을 생포하였다. 그러나 무신란 직후 논공에서 김진희의 의거는 빠졌다가 정조 무신년(정조 12, 1788) 무신년에 從征한 將士로서 생존한 사람과, 의를 지켜 殉國하였으면서도 아직까지 공적이 褒揚되지 않은 사람들을 조사할 때, 金元行의 글을 청주현감 鄭杆과 충청도 관찰사 洪櫨이 장계하여 증작되고, 자손에게 포상이 내려졌다.

사인 金世萬 역시 의병 17인을 이끌고 반군인 軍校 韓震興을 베는 공을 세웠으나 당초에는 녹훈에 이름이 빠졌었다. 1788년(정조 12) 그 공이 인정되어 자손에게 포상이 내려졌다.

사인 진주유씨 柳社錫은 아들 柳挺箕·柳挺斗와 士校 金斗江 등 의병을 거느리고 안성·죽산에서 패주하는 반군 柳海를 사로잡은 공이 인정되어 역시 1788년에 추가로 錄勳되었다.

기생 해월(?~1734)은 본래 청주영의 기녀로 무신란이 일어날 당시 비장 홍림의 첩이었다. 홍림이 반군에게 죽은 후 유복자를 낳아 7년 동안 키운 후 남편을 따라 죽었다. 이러한 해월의 정렬을 유생 민이혁 등이 상소하여 1738년 명정되었다.



上黨倡義錄序

子曰歲寒然後知松栢之後凋
言君子臨利害遇事變然後所
守可見也故自古忠臣烈士當
國家危難之際蹈白刃而死之
若漢之翟義唐之張巡宋之呂

社是也至於本朝趙文烈公

憲郭忠翼公再祐等皆起義兵
討倭奴或成功或不成而死
焉信所謂歲寒松栢也嗚呼上
黨之難尚忍言哉節度使李忠
愍公鳳祥營將南忠壯公延年

為賊所殺賊兵皆日犯京師
倡義使朴公敏雄與其弟力士
敏俊起兵討賊朴公之庶孫公
壽昌李公世命朴公重寔具公
德明閔公鎮綏卞公觀夏金公
夢魯李公鵬海李公慶兩等慨

昌義錄

序

然響應謀所以招集死士削平
狂寇者其精忠武勇之氣誠可
以感動神明何其壯也清州朴
君昌漢輯諸公倡義之事為一
書屬余序之嗚呼士有一能一
藝猶足以傳於後世况為國

不壽金

家討凶賊大節卓卓安可不表

章義烈震耀於無窮耶是為序

癸巳二月二十日長水黃景源序

昌義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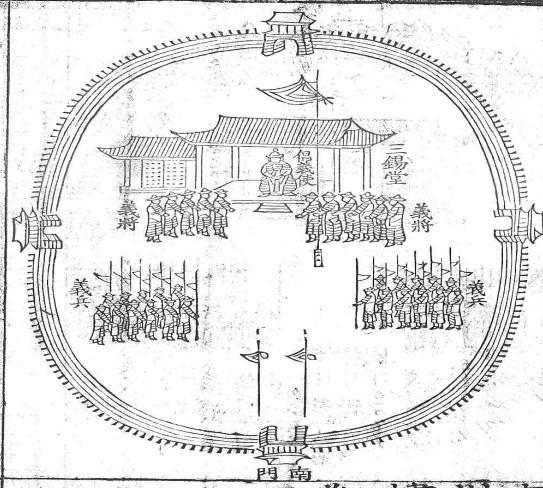
序

三

作事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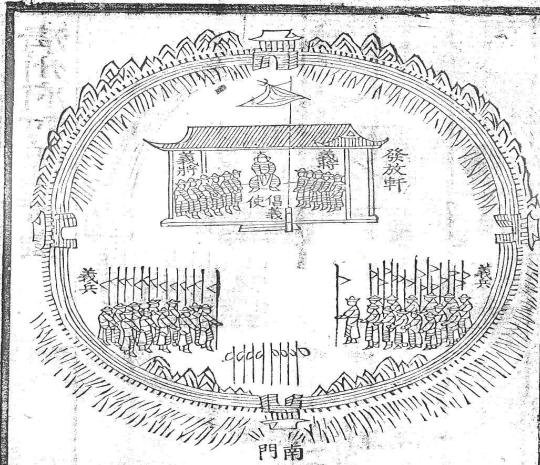
癸巳二月二十日長水黃景源序

清州府討逆梟首圖



倡義使朴敏雄
率諸義兵入清
州兵營斬賊帥
楠等懸首旗頭
凱向山城

上黨山城討逆圖



是時賊帥天不
稱以兵使駿佐
稱以元帥率馬
步兵六哨軍校
數百據此故倡
義使使將校黃
龍澤等先曉以
忠逆而為內應
後入城賊帥
十八日大啓

倡義錄

倡義使朴公敏確字士豪平陽人開碩堂吏曹判書
仲林之後醉琴軒彭年即六臣之首而於公為傍祖
高祖春蕃壬辰義將祖元震府尹 贈大司憲世隱
即其考也自幼至長喜怒不形誠孝罕倫友愛隆篤
丁內外艱六載居廬平生行己不為物利之誘一心
所在只切忠孝之願 肅廟升遐平涼草履歷盡山
川自稱居士無意當世而奇智偉略為世所服當時
將相迭薦以將材逮至戊申三月望逆賊麟佐之起
也始陷清州三忠死焉平時衣 君之輩及自鼠竄

倡義錄

倡義錄

時事何言公適客洛城聞此賊奇慷慨憂憤罔夜下
鄉則賊黨已為分向京師而天永駿佐等自稱兵使
或稱虞候盤據州城賊勢熾張四方爭投列邑響應
難可以如干義旅勦滅凶徒公慨然痛泣招來本州
將校黃龍澤諭以大義使為外應又以趙重伯為內
應而倡率義旅驅向賊所先斬兵營雷鎮賊櫛等文
子懸首街頭轉進山城斬獲賊等二十餘魁雷聖
風驅一警之間勦盡賊徒其時從事官朴廷維領軍
將公之弟敏俊敏彥族侄之虛延壽昌朴重取李世
命而公之子新祐陪親從軍時則三月二十四日也

卽以白文馳 啓翌日歸家則自 上特除倡義使
兼上黨虞候之 旨蓋十七日崔相圭瑞吉變時朝
廷薦公特 除而職帖爲賊兵所阻下及於平賊後
翌夕而白文已達於朝則朝著感歎其名實之相符
矣雖有職帖之降而一向謙退終不就仕以嶺寇之
繼熾又下尚州營將兼倡義使之旨別諭略曰倚爾
如長城俟賊盡滅後遂爾高潔之志亦未晚也辭旨
切至公不得已到尚營備嶺賊其後自海美出寧昌
城築城要衝之地可以備賊者三處而別備軍器亦
藏別庫御民以仁奉上以道無一毫爲私之心而全

出於憂國之誠故爲御使所褒自 上特賜表裏一
襲別加獎諭升拜江界府使未及赴任公得奇疾自
度不起預書銘旌以湖西散人朴公之柩八字蓋於
斯見其旣脫爵祿之志也公之忠義實有所自露梁
僱丹以後壬辰之亂花遷堂諱春茂倡義討倭觀朝
龍灣丙子之亂梅隱堂諱東命舉義赴京殉身茂溪
甲子之變諱弘遠弱齡助捷鞍峴皆公之徬祖族祖
也則忠義一字是公青氈凡佗孝悌之行睦婣之道
難以枚舉而略述臨亂奮義之樓槩焉
除尚州營將兼嶺南倡義使時 別諭

乃者狂寇逞凶乘湖閩不備賊殺我將吏屠戮我民
人闖然爲犯闕之計於是賊臣宗元首先屈膝世祿
名曹官字牧如弼顯象極者相繼響應河北無義士
之歎不幸近之而天理民彝遂蕩然埽地矣爾以草
莽寒士予所不識爲何狀者而慷慨投袂倡發義旅
殲殺逆魁收復一州義聲赫然聞者氣奪予故嘉乃
擢授鎮營乃爾過執謙讓不欲應命爾固激於忠義
爲所當爲非有求於予者國之褒功獎義之典其將
卒無所施耶中人之情待勳而興爾雖無意爵賞獨
不肖屈志俯就以鼓我四方義士之氣耶矧今鎮寇

繼熾予方倚爾如長城夫任節制之權而無位號不
成事理爾須臾勉應命進兵勦討俟賊盡滅遂爾高
潔之志亦未晚也茲下別諭爾宜知悉事 有旨

戊申四月初二日

義兵將朴公敏俊字彥伯倡義使敏雄之弟也孝之
超常氣骨非凡膂力絕倫武藝夙成累擧不中粵桂
丁未御使金始烟薦以力士亦未蒙擢用逮至戊申
賊變公之兄倡義之時身爲先鋒直向賊藪而斬兵
營雷鎮賊因向山城之際賊窟漸近砲聲大亂人莫
不凜慄或有齧齟失色者公拔劔誓衆曰汝等若有

逃避者則我當以此劔斬之汝死於此則死以爲逆
鬼入於賊陣以義而死則死必爲忠魂矣忠以道之
義以諭之馳八城內勦滅羣盜賊坐於發放軒迺
走北將臺其膂力超衆非百人之所可敵者也公奮
臂獨逐縛致帳下卽以斬之嗚呼公之奇功偉績豈
易論哉名登鐵券之身上老蓬華之下而未展其才
者何莫非世運通塞之致耶

義兵將朴公之屋字馨伯壬辰倡義使花遷堂春茂
之五代孫丙子殉節梅隱堂東命之玄孫也從曾祖
弘遠适亂倡義考 贈參議璟以孝聞公氣岸軒輕

昌義宗

四

有三代倡義之遺風常孝於親敦於族而慷慨有大
志平生所覽者將鑑所誦者離騷經出師表而已丁
未遭外艱廬于墓側當戊申亂憂憤涕泣曰當亂倡
義我家箕裘豈以衰麻而失此機乎遂倡率義旅李
繼完柳師默等百餘人以其子龍漢光漢爲前鋒以
從之彩之蘭爲後隊其從事官卽柳時默南天重也
赴族叔倡義元帥敏碓陣討滅山城賊錄勳一等
贈秩先考屏溪尹鳳九書梅隱公旌閭銘曰先祖餘
烈猶爾不墜云

義兵將延公壽昌字文舉谷山府院君靖厚公嗣宗

之十二代孫而其考卽文監察最績 肅廟朝已已
抗章殉身 贈秩吏判旌閭忠孝兩全公當戊申變
慷慨倡義乃使趙持誠完濟父子募得義旅四十餘
人直搗州城與倡義使朴公敏雄并力合勢共斬橪
賊同向山城討滅駿永賊二十餘醜錄勳一等蔭至
禮山縣監

義兵將李公世命字聖愛系出 璿源密城君瑛之
後故相國白江敬輿之再從孫也當戊申之變慷慨
奮臂思欲勦滅其從弟道命曰吾當曉諭親知募兵
而來矣果得義旅七十餘人公喜以道命泰之爲副

昌義系

五

傳事金

以堂侄元之亨之兄弟爲從事官以宗人敏核希命
爲前以啓命徵命爲後使閔遇聖閔運糧直到邑
城與朴公敏雄合軍協謀共斬橪賊同向山城討誅
二十餘醜道命則亂平後本倅趙公彥臣兼以按撫
之任選爲別武士希命亦選其中盡捕漏網餘黨而
公則錄勳一等特 蒙榮親之典

義兵將朴公重取字器伯尚州人吏曹判書良生十
代孫己卯名賢司諫華齋光佑六代孫也簪纓故家
世襲忠孝性質仁厚不事名利嘗爲鄉隣之所推服
矣戊申之變州城陷沒人情恟懼公招集族黨而告

之曰國事至此不死何為遂倡率義士以其弟進士
敏取為從事官與倡義使林敏雄合勢殲馘醜徒平
定褶亂錄勳一等特蒙榮親之典

士人李鵬海即牧隱文靖公禧之十三代孫佐理功
臣墳之九世孫也為人沉靜多機略慷慨有大節當
咸甲麟賊之亂不勝敵愾之忱賊黨天永等屯據上
黨山城勢方鴟張而憤不顧身出萬死之計率其從
弟出身李思海堂姪士人李重著鄉人金錫龜等聚
會遠近上下數百餘人直搗城東門入與倡義使朴
敏雄合謀併力掃滅天永等十八巨魁馘于朝

家人於召募使俞崇 狀聞中受原從一等功臣錄
券追榮其考公力主三忠建祠之論與延 額之舉
稟議于丹巖閣相公相公素知其雅望面托以大事
竟至竣事鄉黨至今稱美

義士將閔鎮綏字士安驪興人 端宗朝名賢判書
審言之十代孫 睿宗朝直臣吏曹正郎粹之八代
孫也自少慷慨有大志出入於黃江權先生門下以
禮學文藝見推士流當戊申三月之變倡率一門宗
黨及鄰近親知百餘人與士人李鵬海等合勢入上
黨城殲討羣賊守城累日自備畱糧者蓋嫌國毅之

擅食也獨書士字於義錄之中者以別凡兵之混例其操尚之耿介識見之高明世皆稱之卒於是年之九月 朝廷特 贈承旨追榮其考

義兵將吳公德明字德甫寶城人素有慷慨之志戊申聞山城之變慨然有沐浴之志而官軍之赴賊陣者諭以逆順使不赴賊令鄰近居民陳以義理使不受賊耀倡率義兵六十二人以長子晏為前以次子晏為後入于山城與諸倡義之人共靖其亂以受勳錄特蒙榮親之典

義兵將金公夢魯字聖希清風人靖 國功臣清平

書義錄

七

符壽金

君友曾七代孫郡守樞子也 肅廟丙申登武科內

外清顯丙午以忠清水使解歸鄉里戊申三月十五

日逆賊麟佐等陷清州三忠皆死之公聞變即與前

注書愈彥協再從兄光魯募得義旅數百以彥協光

魯為從事官以弟應魯範魯再從姪金致龜武人愈

彥翁朴重天為裨將移檄于都巡撫使吳命恒告以

討賊 勤王之意遂擊劔誓眾曰 邦運不幸凶賊

舉兵 主辱臣死義不敢辭凡我同志之士敢愛一

死眾皆扼腕效死乃會士而搞時夜已深疾馳平朝

到清州城下捕賊卒金壽錫賊校盧泰鎮斬之聞賊

魁天永據上黨城引兵向城未及至倡義使朴公敏
確已斬天永等來遂合軍還到州城盡平城中遺賊
召募使愈崇以狀聞 上下諭勞之錄一等勳時嶺
賊尚熾 上命擇將才 廷議咸以公為薦 特除
黃澗縣監公遂罷義旅擇壯士十餘人為帶系即以
戎服赴任修教戎務鎮撫慰諭一境賴安後宣至節
度使

寫長家

八

皮哉夢魯等竊不勝痛哭披血之忱思欲奮臂一呼
赴鬪以死而昇平百年民不知兵猝見凶變波蕩逃
竄山谷不見有一人應募者屢日招聚昨暮始得鳩
合若干士眾犯夜發行到州南乃聞僉尊先已著
鞭誅戮逆盜已雪神人之憤此甚盛事不覺屈膝心
仰而又聞安城竹山之戰官軍連捷云此誠國家之
大慶也鄙等既聞此報則不妨從此散歸而已到方
井里距山城至近之地則不得不與僉尊相面一賀
故舉一軍來在城外先此檄告事右檄山城倡義使
使節下

義將前翊贊下觀復士人李慶雨事蹟
則本草不來故未能同錄識者恨之

遺補

麟賊之據清州也有桓桓一丈夫到門外願與同
事賊大喜招致階上則請以升堂從容論事賊疑
之搜其懷則果有一匕首賊驚而鞠之則極口罵
賊曰我欲一劍除汝而反為所擒豈非命耶賊遂
殺之考其牌則乃黃海道信川金重憲也後自備
局揆問信川褒贈軍器寺判官
士人金世觀素以慷慨之士遭母喪居廬倡率義
旅赴上黨城討賊錄勳贈秩其考

同知金晉熙故相國字杭庶侄也居在上黨山城

昌表

九

作事金

底矣將校黃龍澤等受朴倡義使內應之教先入
山城之際請公偕去討逆有大功

士人金世萬率義卒十七人捕斬賊軍校韓震興
而漏於錄勳人或慨然

士人柳祉錫率其子挺箕挺斗土校金斗江等捕
捉安竹敗走賊柳海海即賊魁之鏡之黨曾為火

賊而忠壯公跟捉械囚者也為前鋒劊忠壯公又
害忠愍公矣及其長斬南德夏劊腹噬肝錄勳於

祉錫

忠愍公屍則土校金志恒成志行及金萬弼金鐵

